금(金) 사상 최고가 눈앞 원자재 투자자 웃음 금 선물가격 1.3% 올라···중국 부양효과 호재다우지수 종가기준 사상 처음 4만선 돌파 기염소비 제조업 모두 건재···월마트 캐터필러 상승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 골드바와 금제품이 전시되어 있다. [사진 = 뉴스1]금값이 다시 사상 최고가에 도전하고 있다. 은과 구리 등 다른 원자재 가격도 동반 랠리를 펼치면서 원자재 투자자들이 웃음짓고 있다.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도 종가 기준 사상 처음 4만선을 돌파하며 마감했다.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34.21 포인트(0.34%) 오른 40003.59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17 포인트(0.12%) 오른 5303.2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2.35 포인트(-0.07%) 내린 16,685.97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다우지수는 전날 오전 장중 4만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다우지수이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중 월마트(1%), 캐터필러(1.58%)가 1% 넘게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두 주식은 각각 미국의 소매판매와 제조업(건설)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들로 미국 경기가 건재함을 알린 셈이다.다우지수는 이번 주 들어 1.2% 상승하며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이번 주 들어 1.5%, 2.1% 상승했다.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반등이 우려됐던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둔화한 게 뉴욕증시 강세를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이 됐다.톰 헤인린 US뱅크자산운용 수석 투자전략가는 “경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둔화의 조합은 완벽한 촉매제”라며 “증시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이 역사적인 수준보다 다소 높지만 기업이익 증가세와 이익의 안정성 또한 역시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은 중국의 호재 덕분이다.중국의 부동산 대책에 힘입어 원자재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경기 반등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자재 가격도 랠리를 펼쳤다는 것이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2417.4달러로 전장보다 31.9(1.3%)달러 올랐다.금 선물은 전날 장 중 한때 2400달러 선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달 12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온스당 2448.8달러) 경신을 다시 시도하는 분위기다.은과 구리 가격도 크게 올랐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은 선물 종가는 온스당 31.26달러로 전장보다 1.38달러(4.63%) 오르며 2013년 1월 이후 약 11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7월 인도분 구리 선물 종가는 파운드당 5.05달러로 전장보다 17.3센트(3.6%) 올랐다.바트 멜렉 TD증권 수석 원자재 전략가는 “금은 달러화와 채권 수익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펼치고 있다”며 “다른 원자재 금속도 강세를 보인 것으로 볼 때 중국의 부양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